

전북대 ‘큰사람프로젝트’, 학생 취업 효과 ‘최고’

최고 등급 취득자 취업률 76.3%

일반 학생에 비해 20% 상회… 지난해 취업률 국내 1위 성균관대 73.8%보다 높아

전북대학교 학생 경력관리 프로그램인 ‘큰사람프로젝트’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큰사람프로젝트’는 2008년 시작해 학생들의 경력관리와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전북대 대표적 경력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 프로젝트를 통한 학년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화이트벨트부터 블랙벨트까지 5가지 벨트를 받아 학년별로 전공 역량과 실무 경험을 쌓았다는 인증을 받게 된다.

또한 졸업까지의 다양한 경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취업 시 이를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전북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졸업한



전북대학교 학생 경력관리 프로그램인 ‘큰사람프로젝트’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큰사람프로젝트 핵심 인재와의 간담회.

학생들(취업통계 대상자)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최고 등급인 블랙 벨트(BLACK BELT)를 취득한 117명의 학생 중 76.3%, 그 아래 단계의 레드 벨트(RED BELT)를 취득한

258명 중 71.1%가 취업했다.

이는 학년별 벨트 취득자의 평균 취업률인 64%, 벨트 미취득자의 평균 취업률인 58.8%를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 취업률 1위를 차지한 성균

관대의 취업률인 73.8%, 2위인 한양대의 71.8%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취업의 질 또한 매우 우수했다. 블랙 벨트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KIA,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OCI,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유수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했으며, 공무원(지역인재 7급, 행정직, 교육행정직, 녹지직, 중등교사) 등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했다.

조동휴 학생취업진로처장은 “전북대의 대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큰사람프로젝트가 취업 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5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전북교육청, 전북에듀페이 등 총 5개 사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5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사례로는 △전국 최초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하는 전북에듀페이(최우수) △교육공무직의 급여 및 인사기록 관리 개선으로 업무경감 실현(우수)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불안 요소를 차단한 사전 설명회 개최(장려) △학생의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장치 고안(장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ESG를 융합하여 탄소중립 교육의 윤리경영 강화 및 관련 예산 절감

(장려) 등이다.

이들 사례는 교육부 적극행정 실천사례 경진대회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우수사례와 겨루게 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북교육청에서 제출한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등급을 차지한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고민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1회용 용기 반입 금지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사진은 24일 전북교육청 본청 1층에서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 각 부서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텀블러를 사용하며 ESG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4월 1일부터 1회용 용기 반입 전면 금지”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 ‘ESG 실천’ 일한… 캠페인 전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 용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을 위해 마련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1회용 용기 반입 금지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첫날 캠페인에 참여해 친환경 실천을 위해 1회용 용기 반입 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날 열린 전략회의에서도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각 부서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모두 텀블러를 사용하며 ESG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청사 내 1회용 용기 반입 금지가 잘 정착되도록 4월

한 달 동안 텀블러 사용 인증 캘린저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생활 방식을 학교 및 지역사회까지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1회용 용기 반입 금지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친환경적 삶의 방식을 장려하는 출발점”이라며 “더 나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총장 직무대리에

염기욱 교무처장 지명

국립군산대학교는 3월 24일 자 교육부 총장 직위 해제 인사 발령 통고에 따라, 염기욱 교무처장을 직제순에 따른 총장 직무대리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3월 24일 9시 염기욱 총장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보직자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학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염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흔들림없이 많은 바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 가자”고 밝혔다.

특히,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글로벌대학사업, 모집단위 광역화 등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대, 싱가포르와 국제 협력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회의장단 방문과 싱가포르 테마파크 폴리테크닉 대학(Terresak Polytechnic College, 이하 TPC) 호텔관광학과 학생들의 단기 연수를 통해 전주대-싱가포르 간 국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싱가포르 국회의장인 시안 키엔 펑(SEAH KIAN PENG)을 비롯한 싱가포르 방문단은 전주대를 찾아 교육,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논의했다.

이어 3월 17일~21일에는 싱가포르 TPC 호텔관광학과 학생 24명을 전주대로 초청해 단기 연수를 진행했다. 호텔경영학과 임현정 교수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이끌었다. 오전에는 전공수업을 수강하고, 오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5일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학생들은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전북 관광 활성화 방안과 개인적인 소감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전북교육청, 5월 23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통합 순회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월 23일까지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통합 순회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점검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급식종사자, 시설관리원 등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도와 안전보건 업무 지원까지 확대해 산업안전보건 통합 순회점검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책 안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현업업무종사자 건강관리 등이다.

특히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순회점검 시 보건관리자가 건강상담을 진행하며, 질환이 의심되

는 경우 산업보건의를 통한 상담이 제공된다.

또한 저경력 업무담당자 및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산업안전보건 통합 순회점검 대상은 점검 실적이 없는 기관, 산재 발생기관, 산재발생위험이 높은 기관 등 180곳으로, 전북교육청은 2028년까지 도내 720여 개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통합 순회점검은 단순한 근로환경의 안전 점검을 넘어 모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학생·교직원·근로자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점검단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2층 강당에서 학교급식 점검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비롯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에 참여하는 점검단(학부모·소비자감시단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 내용은 △청렴 연수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점검자의 역할 △학교급식 현장 점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안내 등이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점검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급식 점검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양원 문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수원, 신규공무원 실무교육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신규공무원 실무교육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 7개 직렬 257명(사립학교 직원 21명 포함)으로 직렬 및 근무기관에 따라 2기(기수별 4일, 27시간)로 나눠 진행된다.

1기 과정은 25~28일까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을 대상으로, 2기 과정은 4월 1~4일까지 교육행정직과 기타 직렬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공직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실사구시 교과목으로 편성해 공직자로서의 소명 의식 함양, 정서적 안정, 직무능력 향상 등을 통해 조직응답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직무교과는 선배 공무원들을 강사로 초청해 실무위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완성 원장은 “저경력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해 조직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과학기술 미래 동량들, 전북대서 ‘날갯짓’

과학영재교육원 입학식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정덕호)이 지난 22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1년간의 심화 및 사사과정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입학식에는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덕호 원장의 인사와 교육과정 안내 등이 이

뤄졌다.

올해는 초등심화과정 55명을 비롯한 중등심화과정 85명, 중등사사과정 32명 등 총 172명이 입학했다. 심화과정 학생들은 STEAM교육, SW융합교육,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1년간 100시수 이상의 다양한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심화과정 중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사과정에서는 연구 프로젝트 형태로 80시수 이상의 교육이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